

전국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 2011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2011 Korean Public Libraries' Management Evaluation

최재황(Jae Hwang Choi)*

차성종(Sung-Jong Cha)**

< 목 차 >

I. 서론	6. 시설 영역
II. 연구 설계 및 개요	7. 홍보 영역
III. 평가 영역별 분석	8. 교류협력 영역
1. 계획 영역	9. 지역사회유대 영역
2. 서비스 영역	10. 전체 영역
3. 전자서비스 영역	IV. 16개 시·도별 분석
4. 장서관리 영역	V. 결론 및 제언
5. 인적자원 영역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699개 공공도서관의 2010년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결과 전체 영역의 평균 도달률은 56.6%로 나타났다. '장서관리' 영역(65.8%)과 '계획' 영역(60.8%)이 높은 도달률을 보인 반면, '교류협력' 영역(41.8%)과 '지역사회유대' 영역(48.5%)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달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류협력'과 '지역사회유대' 영역의 낮은 도달률은 향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타 관중 및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유대활동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가 국가 도서관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운영평가의 결과에 기반 한 대안 도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평가, 도서관 경영, 운영평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for the Korean 699 public libraries during the year of 2010. The 'collection management' area(65.8%) and 'strategic management plan' area(60.8%) showed high performance rates compared to the average rates of the entire areas(56.6%). On the other hand, the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area(41.8%)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ies' area(48.5%) show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rates compared to the average rates of the other areas. This study shows that in order to enhance public library services in the future in Korea,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and communities are indispensable. This study also recommends that the annual "Korean Public Libraries' Management Evaluation" project be focused on connecting to the national library policy and try to present alternati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nual project.

Keywords: Public libraries, Library evaluation, Library management, Management evaluation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제1저자)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sjcha@mcst.go.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2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2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3월 23일

I. 서론

지역사회 핵심 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의 수는 정부의 건립지원 확대로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00년 400개관에서 2010년 12월 현재 759개관으로 지난 10년간 도서관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범적인 도서관 운영평가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¹⁾를 시행해 왔으며, 2009년²⁾, 2010년³⁾에 이어 2011년 현재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중 공공도서관 부분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개선 방안에 반영되어 좀 더 현장에 기반을 둔 발전적인 도서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설계 및 개요

2004년 정현태⁴⁾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관리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파악하고, 정책당국이 실현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정책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개발해 내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정현태의 연구로부터 7년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는 총 699개⁵⁾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699개 공공도서관의 구성은 운영주체별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27개관,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397개관, 어린이·사립도서관이 75개관이었다.

2011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는 '계획, 서비스, 전자서비스, 장서관리, 인적자원, 시설, 홍보, 교류협력, 지역사회유대'의 9개 영역에 걸쳐 총 3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이 지표는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⁶⁾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것을 시범평가 등을 통해 수정·보완한 후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0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 4) 정현태, "공공도서관 관리운영평가 6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5권, 제1호(2004), pp.69-89.
- 5)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운영된 전체 703개 공공도서관 중 「201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시행일(2011.7) 현재 폐관된 2개관, 관종이 변경된 2개관 등 4개관을 제외한 총 699개관을 평가 대상으로 함.

에 2008년부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공공도서관 부문 평가에 활용해 오고 있는 중이다. 9개 영역별 상세한 세부지표 및 배점 등이 포함된 2011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1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영역	세부 평가지표	배점	A그룹	B그룹		
I. 계획 (100)	(1) 지역사회 구성원의 특성 파악	20	20	○	- ×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당해 연도 목표달성도)(정성평가)	50	50	○	- ×	
	(3)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	10	10	○	- ×	
	(4)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정성평가)	20	20	○	20 ○	
II. 서비스 (230)	(5) 이용자 서비스 현장 제정 및 이행 실태	10	10	○	10 ○	
	(6)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대출 권 수	40	40	○	40 ○	
	(7) 자료실 개관일 수	10	10	○	10 ○	
	(8) 다양한 참고봉사 실시 여부	20	20	○	- ×	
	(9) 상호대차 실시 여부	10	10	○	- ×	
	(10) 문화프로그램 실적 및 우수성(정성평가)	40	40	○	- ×	
	(11)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 실적 및 우수성(정성평가)	40	40	○	- ×	
	(12)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우수성(정성평가)	30	30	○	30 ○	
	(13)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현황	30	30	○	30 ○	
	III. 전자서비스 (100)	정보안내 서비스	(14) 자료정보	10	10	○
(15) 문화행사			10	10	○	10 ○
(16) 지역정보			10	10	○	10 ○
이용자서비스		(17) 게시판 운영	10	10	○	10 ○
		(18) 커뮤니티 운영	10	10	○	10 ○
		(19) 온라인 참고서비스 제공	10	10	○	- ×
		(20) 모바일 서비스	10	10	○	- ×
전자자료	(21) 전자자료 제공 종류와 규모	30	30	○	30 ○	
IV. 장서관리 (140)	(22) 자료구입 예산	50	50	○	50 ○	
	(23) 장서관리의 주제 다양성	40	40	○	40 ○	
	(24) 연간 장서 증가율	20	20	○	20 ○	
	(25) 명문화된 장서개발 지침 수립 여부	30	30	○	- ×	
V. 인적자원 (110)	(26) 최고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력	30	30	○	- ×	
	(27) 사서 및 직원 현황	30	30	○	30 ○	
	(28)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 훈련 체계	50	50	○	- ×	
VI. 시설 (40)	(29) 도서관 자료실 면적(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비율	20	20	○	20 ○	
	(30)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20	20	○	20 ○	
VII. 홍보 (70)	(31) 도서관 홍보 활동 실시 현황(정성평가)	40	40	○	40 ○	
	(32) 도서관 소식지 또는 간행물 발간 여부	30	30	○	- ×	
VIII. 교류협력 (50)	(33) 타 관중 도서관과의 협력	20	20	○	- ×	
	(34) 작은도서관(문고 포함)과의 연계서비스(정성평가)	30	30	○	- ×	
IX. 지역사회유대 (60)	(35) 지역사회유대 활동의 우수성(정성평가)	30	10	○	10 ○	
	(3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적	30	30	○	30 ○	
총계		900	900	-	500 -	

6)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전체 699개 참여 도서관은 규모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A그룹에 속한 367개 공공도서관은 총 36개 지표 모두 응답하여야 했고, B그룹에 속한 332개 공공도서관은 총 36개 지표 중 21개 지표에만 응답하면 되었다. 다시 말하면, 21개 지표에 대하여는 A그룹과 B그룹을 합한 총 699개 공공도서관 전부가 응답하여야 했고, 15개 지표에 대하여는 A그룹만 응답하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6개 세부지표별로 다수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목표 달성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전국 평균점수를 만점(배점)으로 나눈 도달률로 세부지표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지표의 만점이 10점이고, 전국 평균득점이 6점일 때 도달률은 60%가 된다. 데이터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36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16개 시·도별 분석이 지표와 함께 하나하나 제시되어야 했지만 지면 관계상 도표는 영역별로만 제시하여 세부지표가 아닌 해당 영역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36개 세부지표 중에서 4개의 지표를 제외한 32개 지표에서 응답률이 100%로 나타났다. 지표 6(봉사대상 인구 1인당 대출 권 수)의 경우, 694개관이 응답하여 99.3%의 응답률을 보였고, 지표 24(연간 장서 증가율)는 1개관이 부족한 698개관이 응답하여 99.9%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표 29(전체 건물 면적 대비 자료실 면적 비율)의 경우 617개관이 응답하여 응답률이 가장 낮은 88.3%를 기록했고, 지표 31(도서관 홍보활동 현황)의 경우는 696개관만이 응답하여 응답률이 99.6%로 나타났다.

Ⅲ. 평가 영역별 분석

1. 계획 영역(세부지표 1~4)

〈지표 1. 지역사회 구성원의 특성 파악〉

[A그룹(367개관) 평가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10.9점, 도달률: 54.4%]

〈지표 1〉은 이용자 조사와 비 이용자 조사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이용자 조사의 목적은 도서관을 한 번 이상이라도 직접 방문하거나 웹상에서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비 이용자 조사는 도서관과 접촉이 없었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도서관 중 이용자 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9.7%(256개관)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22.1%(81개관)로 나타났다. 비 이용자 조사에서는 이용자 조사와는 달리 비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2.1%(228개관)로 가장 많았고 비 이용자

조사를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계획과 정책에 반영하였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4.1%(125개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 이용자 조사는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표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A그룹(367개관) 평가지표, 배점: 50점, 전국 평균득점: 34.7점, 도달률: 69.4%]

〈지표 2〉는 종합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여부, 예산확보 계획, 경영혁신 계획, 특성화 전략, 장서개발 전략 등 5개 척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지표이다. 367개 응답 도서관 중 예산확보 계획, 경영혁신 계획, 특성화 전략, 장서개발 전략 등이 포함된 종합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51.2%(188개관)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종합 중장기 발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예산확보, 경영혁신, 특성화 전략, 장서개발 전략 중 3가지 이상 개별계획은 수립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8.7%(32개관), 2가지 개별계획만을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9.0%(33개관)에 그쳤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전혀 없는 도서관도 13.9%(51개관)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3.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

[A그룹(367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6.0점, 도달률: 60.0%]

〈지표 3〉의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여부는 〈지표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체 평가이며 계획된 발전전략에 대한 추진과정 및 결과가 평가되었다. 응답 도서관 중 57.5%(211개관)는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를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보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자체평가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도서관도 37.6%(138개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4.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9.2점, 도달률: 46.0%]

〈지표 4〉는 2011년도의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실적을 정성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용자 서비스 품질, 시설 및 장비, 조직, 인력, 예산 등이 2010년과 비교되었다. 본 지표의 평가 결과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양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실적이 5가지 이상인 면서 실적 우수성에 대한 정성평가가 높은 도서관이 38.8%(271개관), 실적이 전혀 없어 정성평가 점수가 낮은 도서관이 25.2%(207개관)로 나타났다. 그 외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실적 수가 4가지인 도서관이 4.3%(30개관), 3가지인 도서관이 8.0%(56개관), 2가지인 도서관이 9.0%(63개관), 1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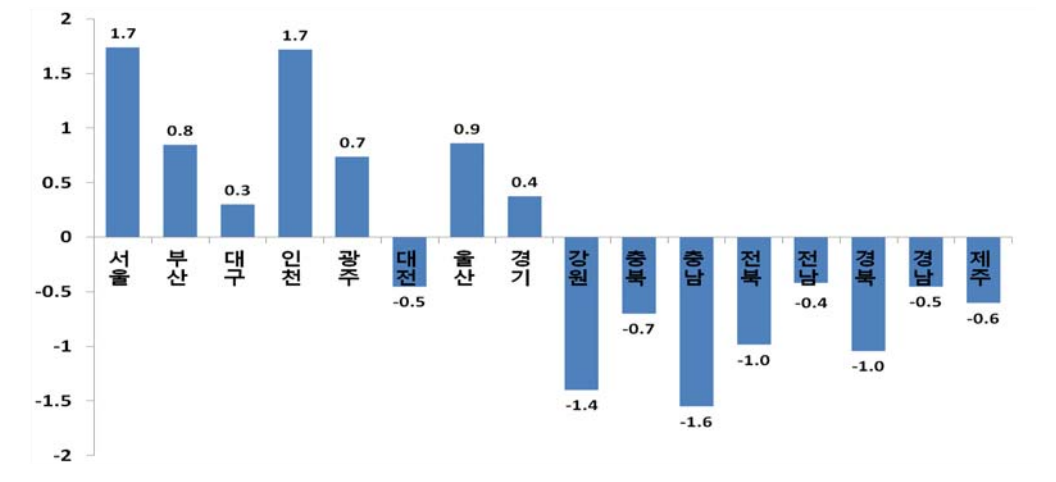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인 도서관이 10.3%(72개관)로 나타나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는 계획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인천시가 〈지표 1〉과 〈지표 2〉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서울시가 〈지표 3〉과 〈지표 4〉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하단의 그래프는 계획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standard normal variable; Z score)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계획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편차
지표 1	20	17.8	13.2	10.9	<u>19.0</u>	13.1	9.5	13.7	11.6	6.9	11.9	7.2	8.0	8.2	9.0	7.8	<u>6.5</u>	10.9	3.6
지표 2	50	47.4	42.8	38.5	<u>49.4</u>	41.5	33.6	43.0	37.0	22.5	26.2	<u>21.9</u>	28.6	31.6	23.5	32.0	31.6	34.7	8.5
지표 3	10	<u>9.7</u>	7.4	7.5	9.0	6.4	6.9	6.7	7.2	2.6	6.7	<u>1.7</u>	2.9	4.7	4.2	3.9	5.5	6.0	2.2
지표 4	20	<u>13.2</u>	10.7	8.6	10.4	11.4	<u>3.7</u>	10.9	10.9	6.8	5.0	5.6	5.8	9.7	7.7	10.0	7.7	9.2	2.6
소 계	100	88.1	74.1	65.5	87.8	72.4	53.7	74.3	66.7	38.8	49.8	36.4	45.3	54.2	44.4	53.7	51.3	60.8	15.7



2. 서비스 영역(세부지표 5~13)

〈지표 5. 이용자 서비스 현장 제정 및 이행 실태〉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5.9점, 도달률: 59.0%]

〈지표 5〉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현장을 근간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지표로 응답 도서관 중 이용자 서비스 현장을 제정하고, 로비, 자료

실, 홈페이지 등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공표하였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5.7%(529개관)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용자 불만이나 건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9.4%(485개관)을 기록하여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용자 서비스 현장이 제정되지 않은 도서관도 16.8%(117개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6. 봉사대상 인구 1인당 대출 권 수〉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40점, 전국 평균득점: 20.5점, 도달률: 51.3%]

〈지표 6〉은 관내 대출 및 열람을 제외한 관외 대출과 전자책을 제외한 인쇄자료 대출 권 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대상 인구 1인당 평균 대출 권 수는 2010년 국민 1인당 대출 권 수인 2.45권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및 미달 정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응답 도서관 중 인구 1인당 대출 권 수가 2010년도 평균 도서 대출 권 수의 -40% 미만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40.7%(283개관)로 가장 많았고,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이보다 적은 22.5%(156개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인당 대출 권 수는 2010년도 평균 도서 대출 권수의 $\pm 20\%$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7. 도서관 개관일 수〉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9.8점, 도달률: 98.0%]

〈지표 7〉의 도서관 개관일 수는 자료실을 기준으로 해당도서관의 2010년도 총 개관일 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개관일은 2010년 법정 공휴일인 15일과 월 2회 휴관일 수인 24일을 합한 총 39회의 휴관일을 제외한 326일이었다. 조사결과 응답 도서관의 92.4%(646개관)는 자료실 개관일 수가 기준 개관일의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개관일 수가 기준 개관일 수의 90% 이상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표 8. 다양한 참고봉사 실시 여부〉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13.0점, 도달률: 65.0%]

〈지표 8〉에 대한 평가는 참고봉사의 방법에 대한 것과 참고봉사의 종류를 묻는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참고봉사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79.0%(290개관)의 도서관이 대출데스크 또는 코너에서 참고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를 대출데스크 또는 코너에서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봉사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1호)

응답한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18.8%(69개관)에 그쳤고, 참고봉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은 2.2%(8개관)에 불과하였다. 참고봉사의 종류를 묻는 질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는데 전화/팩스 참고봉사가 90.8%(333개관), 온라인(인터넷) 참고봉사가 83.4%(306개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표 9. 상호대차 실시 여부〉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6.0점, 도달률: 60.0%]

〈지표 9〉는 상호대차 실시 여부와 실시 실적을 복합하여 측정하였다. 상호대차 실시 여부에는 대학, 전문, 학교, 공공, 작은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모두를 포함하였고, 상호대차 실시 실적은 [(상호대차실적÷봉사대상인구수)×1,000]의 공식이 적용되었다. 상호대차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도서관의 44.1%(162개관)가 상호대차를 타 지역, 타 관종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상호대차를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30.0%(110개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대차를 동일 지역 내 타 관종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5%(13개관), 동일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7.4%(27개관)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85.0%는 어떠한 유형이든 관계없이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대차 실시 실적에 대해서는 실시 실적 지수가 2.0 이상인 도서관이 전체 응답도서관의 27.0%(99개관)를, 0.5~2.0 미만인 도서관이 16.9%(62개관)를, 0.5 미만인 도서관이 36.8%(135개관)를 나타내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많으나 실제 실시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10. 문화프로그램 실적 및 우수성〉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40점, 전국 평균득점: 18.7점, 도달률: 46.8%]

〈지표 10〉은 문화프로그램 실적(강좌 수)과 그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문화프로그램의 실적은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동, 취미 생활, 예술, 외국어, 전시, 강좌 등이 포함된다. 문화프로그램의 우수성은 해당 도서관이 제공한 2010년 문화프로그램 중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의 실적에 대하여 응답 도서관의 68.4%(251개관)는 10개 이상의 문화프로그램 강좌 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좌 수가 3개 이하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8.7%(32개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5.7%(21개관)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은 양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상위 10%까지 선정될 수 있는 우수 도서관에 불과 3.8%(14개관)의 도서관만

이 선정되었고, 문화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0점 처리된 도서관도 무려 40.1%(147개관)로 나타나 운영의 질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11.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실적 및 우수성〉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40점, 전국 평균득점: 18.7점, 도달률: 46.8%]

〈지표 11〉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실적 및 우수성은 〈지표 10〉의 평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독서지도, 정보와 관련된 강좌, 행사, 세미나 등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실적과 그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의 실적에 대하여 응답 도서관의 70.0%(257개관)는 10개 이상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의 수가 3개 이하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6.0%(22개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7%(10개관)에 불과하여 매우 낮았다. 〈지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은 양적인 면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위 10%까지 선정될 수 있는 우수 도서관에 불과 6.5%(24개관)의 도서관만이 선정되었고,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해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도서관도 무려 134개관(36.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지표 12.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우수성〉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0.6점, 도달률: 35.3%]

〈지표 12〉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대활자본 서비스, 장애인 대상 대체자료 확보 및 서비스 사례 등이 대상이며, 정성평가로 진행되었다. 특수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상위 10%’와 ‘하위 10%’가 각각 6.0%(42개관), 1.4%(10개관)로 낮은 분포를 보였고, ‘상위 30%~70%’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20.9%(146개관)의 비율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만, 서비스에 대하여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도서관도 44.5%(311개관)로 나타나 높았다.

〈지표 13.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 현황〉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21.2점, 도달률: 70.7%]

〈지표 13〉은 ‘정보활용능력 교육’ 또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이란 이용자들에게 정보검색, 정보원 소개, 정보표현, 인용 및 표절 등과 같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고,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견학,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이용안내 교육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응답 도서관들 중 '정보활용능력 교육'과 '도서관 이용교육' 모두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37.5%(262개관)로 나타났고, '도서관 이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41.0%(287개관)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25개관 더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약 80%정도는 최소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서비스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서울시가 4개의 지표에서, 인천시와 광주시가 각각 2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하단의 그래프는 서비스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서비스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편차
지표 5	10	<u>7.4</u>	6.5	5.7	5.8	6.2	4.7	6.2	6.5	4.7	5.1	<u>4.5</u>	4.9	5.3	5.4	5.7	6.7	5.9	0.8
지표 6	40	19.2	18.2	20.8	16.7	18.5	17.3	19.6	<u>26.3</u>	20.2	<u>16.0</u>	20.3	17.5	17.1	19.3	21.6	21.7	20.5	2.4
지표 7	10	9.9	9.8	9.9	9.8	<u>10.0</u>	9.7	9.8	9.9	9.9	9.8	9.9	<u>9.6</u>	9.7	9.9	9.7	<u>10.0</u>	9.8	0.1
지표 8	20	17.1	12.3	13.9	<u>18.0</u>	14.9	13.0	12.5	12.4	11.2	13.7	11.3	12.1	12.1	12.2	12.2	<u>10.5</u>	13.0	2.0
지표 9	10	<u>8.2</u>	5.8	6.4	7.0	6.1	6.0	6.7	7.4	4.0	3.9	5.0	5.2	4.2	<u>3.2</u>	5.0	4.6	6.0	1.4
지표 10	40	26.7	22.5	24.3	<u>28.8</u>	21.5	17.5	20.5	19.1	13.7	20.9	12.3	14.1	17.6	<u>12.2</u>	15.7	14.9	18.7	4.9
지표 11	40	<u>28.2</u>	23.2	19.8	27.4	15.9	20.5	26.0	20.0	<u>9.4</u>	16.7	14.4	13.7	13.7	12.9	18.4	11.7	18.7	5.5
지표 12	30	<u>15.5</u>	14.7	11.4	12.5	11.3	12.6	12.7	12.2	6.6	6.4	6.4	<u>5.6</u>	11.7	8.0	9.5	9.1	10.6	3.0
지표 13	30	20.3	25.5	21.9	22.0	<u>26.7</u>	24.4	24.5	24.0	18.6	19.5	19.2	<u>15.9</u>	20.2	19.4	22.5	19.6	21.2	2.8
소 계	230	152.5	138.5	134.1	148	131.1	125.7	138.5	137.8	98.3	112	103.3	98.6	111.6	102.5	120.3	108.8	124.4	17.4



3. 전자서비스 영역(세부지표 14~21)

〈지표 14. 자료정보 안내서비스〉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5.8점, 도달률: 58.0%]

〈지표 14〉는 도서관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이용자 안내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지표로 응답 도서관 중 정기적으로 신착자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67.5%(471개관)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으로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있었던 도서관도 65.4%(457개관)로 높았다. 추천도서 또는 신간자료를 도서관이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도 60.5%(423개관)로 높게 나타났지만, 자료정보 안내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도 11.7%(82개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15. 문화행사 안내서비스〉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8.7점, 도달률: 87.0%]

〈지표 15〉는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행사 안내서비스의 제공여부와 그 주기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문화프로그램과 문화행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92.3%(645개관), 이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은 7.7%(54개관)로 나타났다. 문화행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중 월별로 갱신이 되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도 78.0%(503개관)나 되어 그 갱신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16. 지역정보 안내서비스〉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3.8점, 도달률: 38.0%]

〈지표 16〉은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지표 15〉와 마찬가지로 지역정보 안내서비스의 제공여부와 그 주기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역정보 서비스를 도서관이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21.6%(151개관),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부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35.3%(247개관), 지역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3.1%(301개관)로 나타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특정 지역정보를 도서관이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제공 주기에 대하여는 월별이 29.0%(203개관), 분기별이 35.3%(247개관), 연별이 43.1%(301개관)로 나

타나 그 활성화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17. 게시판 운영서비스〉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6.4점, 도달률: 64.0%]

〈지표 17〉은 이용자와 소통의 창구인 게시판의 종류와 그 이용횟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게시판의 종류에는 FAQ, Q&A, 건의사항, 공개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이 제시되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지표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서비스는 자유게시판으로 81.7%(571개관)를 차지하였다. Q&A와 FAQ에도 각각 77.0%(538개관)와 69.7%(487개관)가 응답해 자유게시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도서관은 7.7%(54개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서비스로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 횟수에 대한 응답에서는 월 9건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5%(318개관)로 나타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이용률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표 18. 커뮤니티 운영서비스〉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3.6점, 도달률: 36.0%]

〈지표 18〉은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의 종류 및 그 이용횟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주제,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용자 간에 정보교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동호회로 일반적인 공지, 질문, 문의 등의 게시판과는 구별된다. 커뮤니티의 종류가 4개 이상이면 만점인 5점을 받을 수 있고, 월 평균 게시물이 월 10건 이상이면 역시 만점인 5점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종류에 대하여 4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4.9%(174개관), 3개는 5.6%(39개관), 2개는 10.6%(74개관), 1개는 17.6%(123개관)로 나타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가장 많은 41.3%(289개관)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그 이용횟수에 대한 응답에서는 월 10건 이상이 17.2%(120개관), 월 5~9건이 12.6%(88개관), 월 4건 이하가 26.9%(188개관)로 나타나 커뮤니티 운영은 활발하지 못함도 알 수 있었다.

〈지표 19. 온라인 참고서비스 제공〉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4.8점, 도달률: 48.0%]

〈지표 19〉는 온라인상에서 독립적으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용횟수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응답 도서관들은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제공여부에 대하여 일반 게시판을 통해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53.7%(197개관)로 가장 많았고, 독립적인 참고서비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30.8%(113개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84.5%(310개관), 제공하지 않은 도서관이 15.5%(57개관)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월 4건 이하가 가장 많은 33.5%(123개관), 월 10건 이상이 28.1%(103개관), 실적이 전혀 없는 도서관이 22.9%(84개관)로 나타나 이용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지표 20. 모바일 서비스〉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10점, 전국 평균득점: 5.3점, 도달률: 53.0%]

〈지표 20〉은 자료검색, SDI 서비스, 전자책, 반납 안내, 대출 내역, 자료 예약, 공지사항 안내 등의 이용자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지표이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반납안내 서비스(87.2%, 320개관)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지사항 안내(75.5%, 277개관), 자료예약(64.3%, 236개관), 대출내역(52.3%, 192개관), 자료검색(51.5%, 189개관)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서비스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SDI 서비스로 응답도서관의 15.5%(56개관)에 불과했다. 응답 도서관의 97.7%(664개관)는 한 가지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35개관)의 도서관은 모바일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지표 21. 전자자료 제공 종류와 규모〉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8.0점, 도달률: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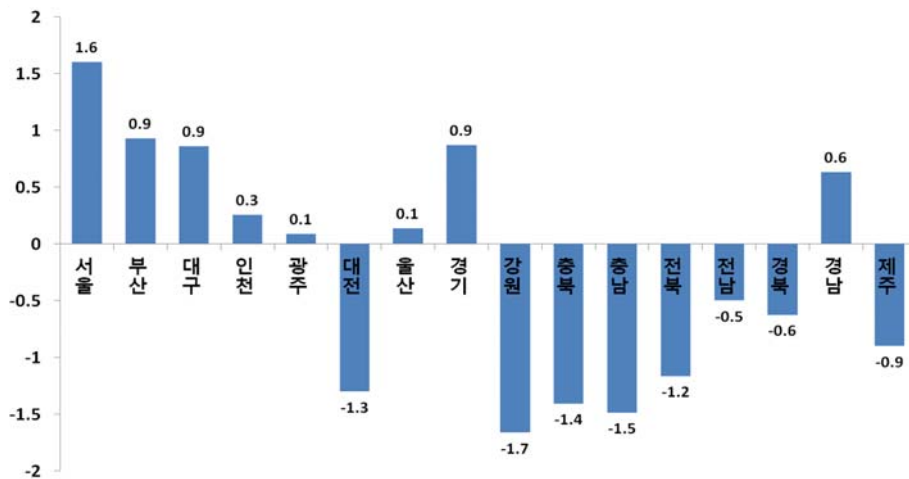
〈지표 21〉은 전자저널, 전자책, 웹 데이터베이스, 기타 디지털 콘텐츠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평가척도는 전자자료의 종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Science Direct에서 1,800여종의 저널이 제공된다면, Science Direct를 구독중인 도서관은 이를 1개의 패키지로 기입하지만, 종수는 1,800이 된다. 2,000종 이상의 전자책, 기타 디지털 콘텐츠(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49.2%(344개관)로 나타나 전자자료 제공이 이미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25.2%(176개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서관 간에 격차가 컸다.

〈표 4〉는 전자서비스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서비스 영역에서는 부산시가 4개의 지표에서, 서울시가 2개의 지표에서, 인천시가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경남이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하단의 그래프는 전자서비스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전자서비스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편차	
정보 안내 서비스	지표 14	10	7.3	8.0	6.6	5.5	6.5	4.2	5.6	6.9	<u>3.8</u>	<u>3.8</u>	<u>3.8</u>	3.9	5.6	5.3	6.9	4.6	5.8	1.4
	지표 15	10	9.3	9.9	8.2	8.8	8.2	8.1	9.8	9.4	8.3	7.2	8.5	7.1	<u>7.0</u>	7.8	9.8	9.7	8.7	1.0
	지표 16	10	5.4	6.1	5.3	4.1	5.7	3.0	3.8	4.6	2.3	<u>2.1</u>	2.4	<u>2.1</u>	3.7	2.9	3.7	4.1	3.8	1.3
이용자 서비스	지표 17	10	7.9	7.5	7.7	6.5	7.0	5.7	6.4	7.7	5.0	5.4	5.1	<u>4.8</u>	5.5	5.1	6.1	5.9	6.4	1.0
	지표 18	10	5.3	6.1	5.5	4.5	3.0	3.3	4.7	3.8	3.0	2.5	2.2	<u>2.1</u>	3.6	2.7	2.9	3.3	3.6	1.2
	지표 19	10	8.0	5.0	6.8	8.4	4.9	3.8	6.5	5.1	2.8	6.7	2.4	3.1	4.2	3.1	4.4	<u>2.0</u>	4.8	1.9
	지표 20	10	8.2	4.6	6.8	6.4	4.7	3.9	7.0	5.4	<u>3.0</u>	4.8	3.8	4.4	4.6	4.4	5.3	5.0	5.3	1.3
전자자료	지표 21	30	21.4	18.7	18.3	14.8	17.3	11.1	14.0	22.4	11.2	<u>9.5</u>	13.0	17.0	17.1	18.7	23.8	12.6	18.0	4.1
소 계		100	72.8	65.9	65.2	59	57.3	43.1	57.8	65.3	39.4	42	41.2	44.5	51.3	50	62.9	47.2	56.4	10.2



4. 장서관리 영역(세부지표 22~25)

〈지표 22. 자료구입 예산〉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50점, 전국 평균득점: 32.3점, 도달률: 64.6%]

〈지표 22〉는 2010년 말 결산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도서관 예산 대비 해당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비중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2010)』에서 제시한 비율 20-25%⁷⁾를 기준치로 한 절대 평가이며, 자료구입 예산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만점인 50점을 받을 수 있다.

응답도서관 중 36.6%(252개관)의 도서관들이 전체 예산 대비 14% 이상을 자료구입비 예산에 사용한다고 하여 만점을 받았고, 24.2%(169개관)의 도서관들이 전체 예산 대비 8%~12%를 사용한다고 대답하여 그 다음으로 많았다. 자료 구입비 예산이 전혀 없는 도서관들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 대비 6% 미만인 도서관은 19.6%(137개관)로 나타나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반 이상인 55.4%는 자료구입비 예산이 전체 도서관 예산의 14%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 23. 장서관리의 주제 다양성〉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40점, 전국 평균득점: 25.9점, 도달률: 64.8%]

〈지표 23〉은 해당도서관 문학류 장서의 비율, 전체 장서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니계수, 그리고 특성화 장서의 소장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문학류 장서의 평가에서는 문학류 장서의 비율이 낮은 도서관 순으로 상위 10%, 상위 30%, 상위 70%, 상위 90%,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대적 배점이 균등하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해당 도서관 문학류 장서의 비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기준에 따라 71개관(10.2%)이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도서관도 역시 71개관(10.2%)이었다.

지니계수는 도서관 소장 전체 장서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2010년도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치가 되는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 출판도서의 지니계수는 0.82였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장서 간의 격차는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지니계수 산출 공식: $\sum_{i=1}^n P(1-P)$ (P : 해당 분야 장서 비율을 0.0단위로 표시한 것)

조사결과 2010년 지니계수 기준치 0.82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한 곳도 없었고, 기준치의 5%~15%에 속한 도서관은 0.1%(1개관)에 불과했다. 기준치 -5%~+5%와 -15%~-5%에 해

7)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0), p.232.

당하는 도서관이 각각 46.3%(323개관)와 45.4%(317개관)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소장 장서는 아직도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 장서 소장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성화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62.1%(435개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37.9%(264개관)로 각각 나타났다. 특성화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62.1%(435개관)의 71.7%에 해당되는 312개관은 장서개발 지침이나 장서개발 특성화 전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표 24. 연간 장서 증가율〉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15.4점, 도달률: 77.0%]

〈지표 24〉는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2010)』에서 제시한 장서 증가율 10%⁸⁾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장서 증가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장서증가율은 2010년도 구입도서(인쇄자료) 증가율로 산출하였다. 연간 장서 증가율이 기준치(10%) 대비 도달률이 90% 이상인 도서관은 36.7%(256개관)로 나타났고, 도달률이 70%~90%인 도서관이 17.9%(125개관), 도달률이 30%~70%인 도서관은 39.5%(276개관)로 나타났다. 기준치 도달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도서관들은 모두 41개관으로 5.9%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지표 25. 명문화된 장서개발 지침 수립 여부〉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8.5점, 도달률: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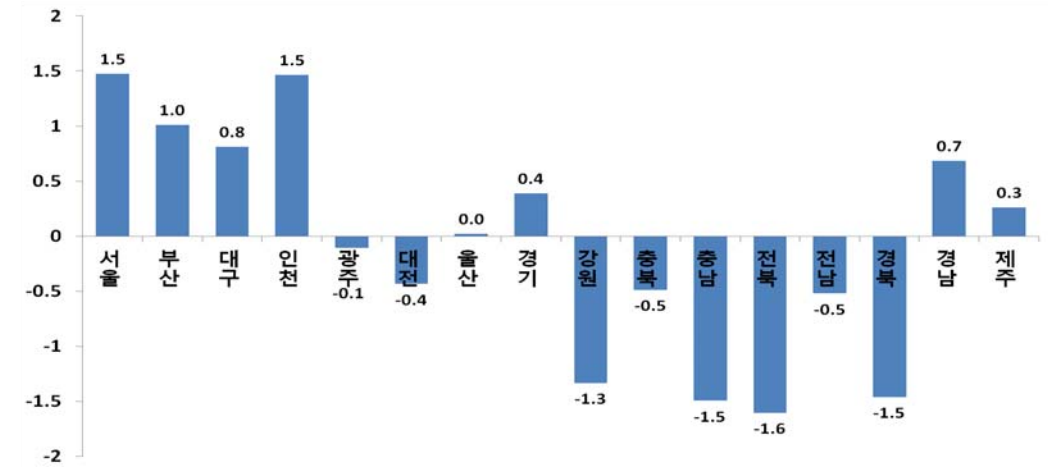
〈지표 25〉는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의 수립과 문서화, 업무 적용 사례의 유무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장서개발 지침과 장서개발 특성화 전략 모두를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 응답도서관의 55.3%(203개관)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55.3%의 도서관 중 97.5%(198개관)는 이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개발 지침 또는 장서개발 특성화 전략 중 한 가지만을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은 22.6%(83개관)로 나타났고, 이 도서관들 중 77.0%(64개관)는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들은 장서개발 지침이나 장서개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이를 업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서개발 지침 또는 장서개발 특성화 전략 중 어느 한 가지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도 전체 응답도서관의 22.1%(81개관)나 되었다.

8) 상계서, p.224.

〈표 5〉는 장서관리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장서관리 영역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경남이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하단의 그래프는 장서관리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장서관리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편차
지표 22	50	31.2	35.6	33.5	31.7	<u>26.3</u>	28.4	26.7	29.9	32.8	29.3	32.2	34.2	33.3	29.3	<u>42.0</u>	40.0	32.3	4.2
지표 23	40	28.5	28.5	23.7	28.7	27.0	24.0	29.0	<u>29.4</u>	23.2	23.6	23.0	<u>20.6</u>	24.6	22.3	25.3	27.2	25.9	2.7
지표 24	20	17.3	15.7	<u>17.4</u>	17.2	14.0	14.5	15.6	15.5	15.1	14.5	14.8	14.5	<u>13.5</u>	14.3	15.7	14.9	15.4	1.1
지표 25	30	<u>28.7</u>	21.6	25.0	28.0	23.8	21.2	21.0	20.9	8.7	20.2	8.3	<u>8.0</u>	15.9	12.7	15.4	12.4	18.5	6.6
소 계	140	105.7	101.4	99.6	105.6	91.1	88.1	92.3	95.7	79.8	87.6	78.3	77.3	87.3	78.6	98.4	94.5	92.1	9.2



5. 인적자원 영역(세부지표 26~28)

〈지표 26. 최고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력〉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21.2점, 도달률: 70.7%]

〈지표 26〉은 공공도서관 최고관리자인 관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지표이며 문헌정보학 전공 여부와 사서직급, 그리고 경력 기간으로 구분하여 평가되었다. 도서관장의 전공분야는 행정/경영(40.6%),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포함)(31.9%), 기타(27.5%)의 순이었다. 도서관장의 사서자

격 직급은 정사서 2급이 20.4%, 정사서 1급이 14.5%, 준사서가 4.9%로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비율은 도서관장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그 비율은 60.2%에 달했다. 도서관장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59.1%, 5년에서 10년 미만이 2.7%, 1년에서 5년 미만이 19.9%, 1년 미만의 경력자가 18.3%로 나타나 10년 이상의 경력자와 5년에서 10년 미만사이의 경력자 간 공백이 특히 컸다.

〈지표 27. 사서 및 직원 현황〉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2.0점, 도달률: 40.0%]

〈지표 27〉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의한 사서직원(기본인원)의 수에 장서수에 의한 사서직원(추가인원) 수를 합한 법정 사서직원 수를 기준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도달률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법정 사서직원의 수가 기준치 도달률 90% 이상인 도서관은 전체 응답 도서관 중 단 2개 도서관(0.3%)에 불과했고, 기준치 도달률이 70% 이상, 90% 미만인 도서관도 역시 단 2개의 도서관밖에 없었다. 기준치 도달률이 30%이상 70% 미만을 보인 도서관도 11.3%(79개관)로 적었다. 그러나 기준치 도달률이 10%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69.0%(482개관)로 높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은 법정 사서직원의 10%~30%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표 28.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직원 교육 훈련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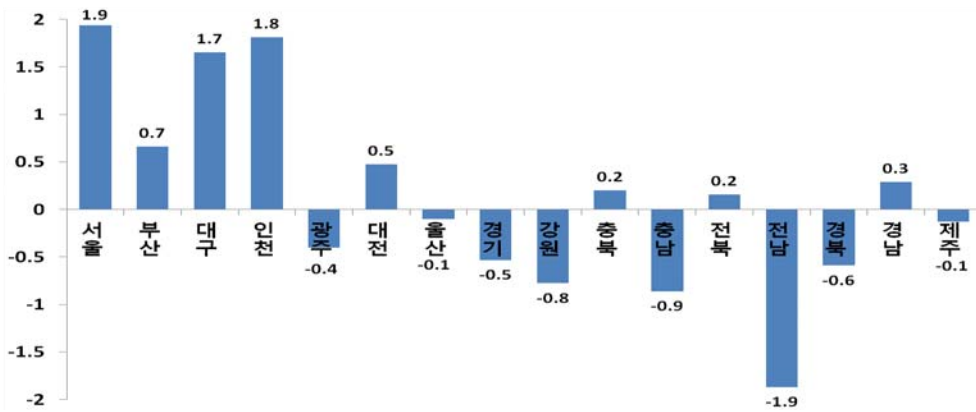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50점, 전국 평균득점: 30.0점, 도달률: 60.0%]

〈지표 28〉은 자체 연수 프로그램,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연수, 규정에 따른 직무 교육 및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의 시간과 참여한 직원의 비율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즉, 교육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시간과 참여한 직원의 비율에 따라 상위 10%, 상위 30%, 상위 70%, 상위 90%,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대적 배점이 균등하게 부여되었다. 참여한 시간에 대한 평가에서 실적 상위 10% 이상에 속하는 도서관은 기준에 따라 총 37개관(10.1%)이 선정되었고, 참여한 직원의 비율에서는 실적 상위 10% 이상에 속하는 도서관으로 총 36개관(9.8%)이 선정되었다.

〈표 6〉은 인적자원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에서 각각 1개의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하단의 그래프는 인적자원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인적자원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 편차
지표 26	30	24.9	26.3	25.0	25.0	20.8	27.0	23.0	18.7	18.9	20.5	19.0	23.2	<u>16.8</u>	19.6	22.4	20.9	21.2	3.0
지표 27	30	14.1	13.0	11.4	12.6	12.3	13.3	12.2	11.5	11.6	11.9	10.9	11.8	11.2	11.2	12.2	<u>10.5</u>	12.0	0.9
지표 28	50	37.7	28.5	38.3	38.2	27.3	26.2	27.3	29.3	27.3	32.2	27.3	29.3	<u>22.2</u>	28.3	30.6	30.9	30.0	4.4
소 계	110	76.7	67.8	74.7	75.8	60.4	66.5	62.5	59.5	57.8	64.6	57.2	64.3	50.2	59.1	65.2	62.3	63.2	7.0



6. 시설 영역(세부지표 29~30)

<지표 29. 도서관 자료실 면적(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비율>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15.8점, 도달률: 79.0%]

도서관의 자료실 면적은 공공도서관 내부 공간 중 공유 공간(복도, 계단, 현관홀, 로비,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등 부대시설 공간)과 직원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한다. 도서관 건물 면적 대비 자료실 면적(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비율은 「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2010)」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공간요소별 면적 배분 기준에 의한 달성 정도를 측정하며, 기준에서 제시한 공간 중 자료 공간과 이용자 공간을 더한 면적 즉, 자료실 면적 비율 70%⁹⁾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도달률로 평가를 하였다.

도서관 자료실 면적이 기준치의 90% 이상에 도달한 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34.7%(214개관)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70%~90%인 도서관이 30.0%(185개관)로 나타나 도서관 기준 대비 자료실 면적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치 도달률이 30% 미만인 도서관은 3.0%(19개관)에 불과했다.

9) 상계서, p.228.

〈지표 3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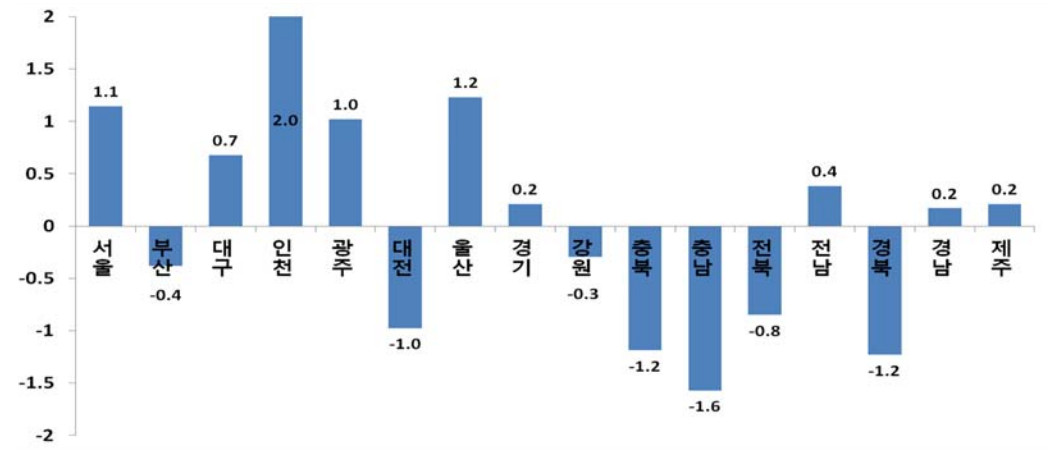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8.1점, 도달률: 40.5%]

〈지표 30〉은 장애인 전용 자료실, 점자자료, 장애인용 보도,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높이는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이며, 갖추고 있는 시설마다 점수가 부여되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지표이며 응답 도서관들이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용 화장실(91.1%), 장애인용 보도(79.1%), 점자안내판(43.8%) 순이었다. 한편, 배점이 8점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전용 자료실은 17.7%에 불과했다. 응답도서관이 얻은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8.1점으로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표 7〉은 시설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설 영역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하단의 그래프는 서비스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시설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밀줄 숫자는 최고점, 밀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 편차
지표 29	20	17.3	16.1	16.7	16.9	15.0	15.3	14.7	16.1	15.8	14.3	14.4	15.9	15.6	14.9	15.9	15.1	15.8	0.9
지표 30	20	9.3	6.9	8.8	11.8	11.3	6.3	12.1	8.3	7.4	6.8	5.8	6.0	9.2	6.1	8.4	9.3	8.1	2.0
소 계	40	26.6	23	25.5	28.7	26.3	21.6	26.8	24.4	23.2	21.1	20.2	21.9	24.8	21	24.3	24.4	23.9	2.4



7. 홍보 영역(세부지표 31~32)

〈지표 31. 도서관 홍보 활동 실시 현황〉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40점, 전국 평균득점: 26.2점, 도달률: 65.5%]

〈지표 31〉은 신문, 방송, 지역 내 학교 홍보활동,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홍보 등 홍보 활동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지표로 응답 도서관들이 선택한 홍보 방법은 현수막이 85.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신문이 79.3%, 지역 내 학교에 홍보가 70.0%, 인터넷이 61.6%, 방송이 40.8%의 순으로 도서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표 32. 도서관 소식지 또는 간행물 발간 여부〉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2.0점, 도달률: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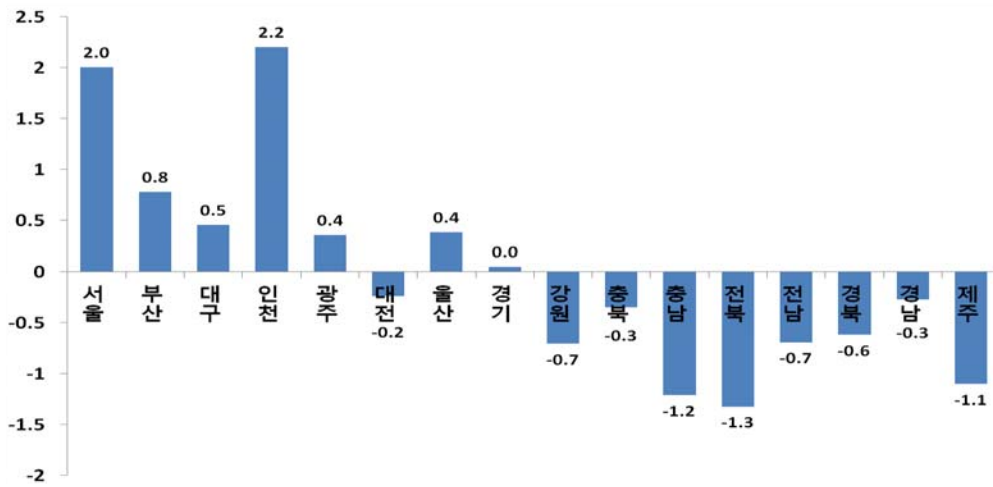
〈지표 32〉는 연차보고서, 소식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여부와 그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여기서 기타 간행물은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독서회 등과 같은 활동으로 출판되는 작품집 등을 의미하며, 도서관이 공동 발간, 편집 등에 참여한 간행물 등도 포함되었다.

연차 보고서의 경우, 응답도서관의 31.3%(115개관)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8.7%(252개관)의 도서관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소식지의 경우, 소식지를 발간하는 도서관은 57.2%(210개관)였고, 발간하지 않는 도서관은 42.8%(157개관)로 나타났다. 소식지를 발간하는 도서관의 경우 발간 빈도, 즉 연간 3회 이상 발간하고 있는 도서관과 연간 2회 이하 발간하고 있는 도서관의 비율이 각각 34.9%(128개관)와 22.3%(82개관)로 나타나 연간 3회 이상 소식지를 발간하는 도서관이 연간 2회 이하로 발간하는 도서관보다 46개관 더 많았다. 기타 간행물의 경우, 발간 여부의 비율은 소식지와 유사하게 발간이 56.1%(206개관), 미발간이 43.9%(161개관)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빈도 또한 연간 3회 이상 발간하고 있는 도서관이 30.2%(111개관)로 나타나 연간 2회 이하 발간하는 도서관의 비율 25.9%(95개관)보다 16개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은 홍보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홍보 영역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하단의 그래프는 홍보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홍보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 편차
지표 31	40	29.5	28.7	25.2	<u>31.5</u>	26.6	25.9	27.2	27.4	23.5	24.3	23.2	<u>22.5</u>	25.1	25.2	25.4	24.0	26.2	2.4
지표 32	30	<u>24.9</u>	15.8	16.7	24.5	14.5	10.4	14.1	11.2	9.0	11.1	5.2	<u>5.0</u>	7.5	8.0	10.6	5.3	12.0	5.9
소 계	70	54.4	44.5	41.9	56	41.1	36.3	41.3	38.6	32.5	35.4	28.4	27.5	32.6	33.2	36	29.3	38.2	8.1



8. 교류협력 영역(세부지표 33~34)

〈지표 33. 타 관중 도서관과의 협력〉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20점, 전국 평균득점: 9.1점, 도달률: 45.5%]

〈지표 33〉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같이 다른 관중의 도서관과 맺은 자료이용, 상호대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의 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이며 협약을 맺은 다른 관중의 수와 교류협정서가 체결된 기관의 수를 평가척도로 하였다. 협약을 맺은 타 관중의 수에서는 3개 관중 이상과 협력을 맺고 있는 도서관이 26.7%(98개관), 2개 관중과 협력을 맺고 있는 도서관이 9.3%(34개관), 1개 관중과 협력을 맺고 있는 도서관이 18.2%(67개관)로 나타났고, 다른 관중과 전혀 협력하지 않는 도서관도 45.8%(168개관)로 조사돼 공공도서관 외 다른 관중과 협력하는 도서관과 협력하지 않는 도서관 간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협력 도서관의 수에서도 5개 이상의 도서관과 협력하고 있는 도서관 (32.2%, 118개관)과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44.9%, 165개관)간 양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 34. 작은도서관(문고 포함)과의 연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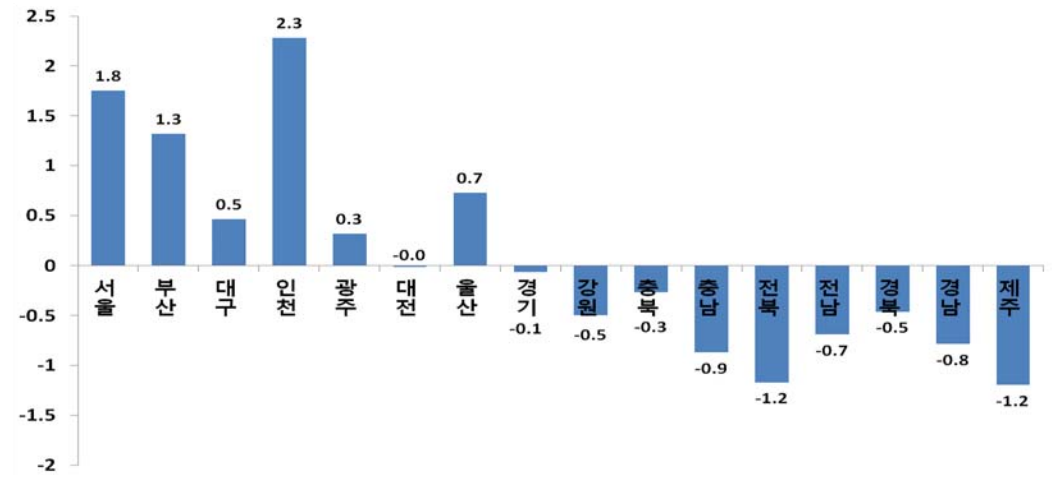
[A그룹(367개관) 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1.8점, 도달률: 39.3%]

〈지표 34〉는 작은도서관과 공·사립 문고에 대한 예산, 장서, 인력 등의 지원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의 수가 3개소 이상인 도서관은 45.5%(167개관)로 가장 많았고, 2개소와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각각 4.1%(15개관), 7.6%(28개관)로 조사되어 매우 낮았다. 작은도서관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도서관도 42.9%(157개관)로 나타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도서관 그룹과 이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도서관 그룹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는 교류협력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교류협력 영역에서는 인천시가 모든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하단의 그래프는 교류협력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9〉 교류협력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밀줄 숫자는 최고점, 밀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 편차
지표 33	20	16.2	12.7	10.0	18.8	10.6	8.9	13.6	9.3	6.5	8.0	7.4	3.6	4.3	6.4	6.9	2.9	9.1	4.3
지표 34	30	19.2	19.1	14.7	21.0	12.9	11.9	13.3	11.1	10.3	10.7	6.3	7.6	10.9	10.7	7.5	8.1	11.8	4.2
소 계	50	35.4	31.8	24.7	39.8	23.5	20.8	26.9	20.4	16.8	18.7	13.7	11.2	15.2	17.1	14.4	11	20.9	8.3



9. 지역사회유대 영역(세부지표 35~36)

〈지표 35. 지역사회유대 활동의 우수성〉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1.2점, 도달률: 37.3%]

〈지표 35〉는 지역사회 내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시민회관, 기타 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기관수와 그 활동 내용을 정성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기관수가 4개 기관 이상이면서 우수성에 대한 정성평가가 높은 그룹의 비율은 33.5%(234개관)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와 교류 현황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정성평가 점수가 낮은 도서관은 이보다 많은 43.4%(304개관)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유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양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 도서관간 격차가 컸다. 지역사회와 교류 활동을 하는 기관의 수가 1개, 2개, 3개인 도서관의 비율은 각각 9.9%(69개관), 7.6%(53개관), 5.6%(39개관)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표 36.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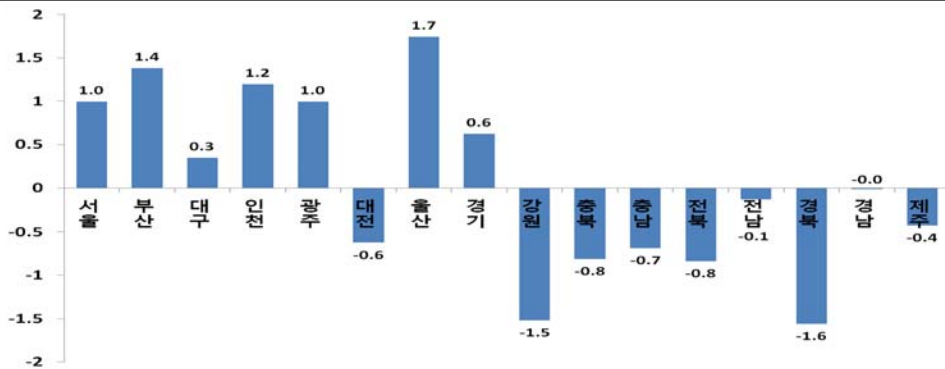
[A·B그룹(699개관) 평가지표, 배점: 30점, 전국 평균득점: 17.9점, 도달률: 59.7%]

〈지표 36〉에 대한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운영위원회의 개최 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각각 69.5%(486개관)와 30.5%(213개관)로 나타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69.5%의 도서관 중 92.6%인 450개관은 지역주민 및 도서관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도출된 정책 반영 실적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2%(421개관)로 실적이 없는 도서관 39.8%(278개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운영위원회의 개최 빈도에 대하여는 개최 실적이 연 2~3회인 도서관이 34.6%(242개관)로 가장 많았고,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도서관이 33.2%(232개관)로 조사되었다.

〈표 10〉은 지역사회유대 영역의 16개 시·도별 평가 결과를 각 지표별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사회유대 영역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하단의 그래프는 지역사회유대 영역의 모든 세부지표 원 점수를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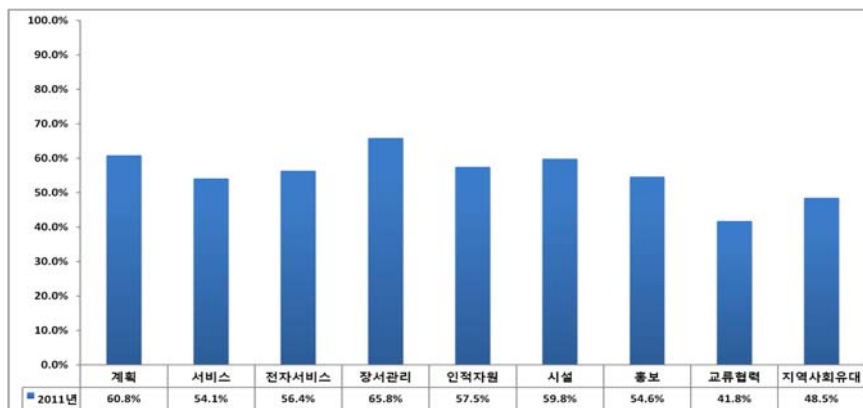
<표 10> 지역사회유대 영역 지역별 분석 (굵은 숫자+밑줄 숫자는 최고점, 밑줄 숫자는 최저점을 의미)

평가지표	배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표준편차
지표 35	30	16.9	16.7	12.6	12.6	13.1	11.8	14.9	12.3	6.6	7.1	8.7	<u>3.9</u>	9.6	9.4	12.2	7.6	11.2	3.6
지표 36	30	20.2	23.5	19.3	26.1	24.0	12.3	28.2	21.8	10.3	15.5	14.9	18.5	18.5	<u>7.2</u>	16.8	18.1	17.9	5.5
소 계	60	37.1	40.2	31.9	38.7	37.1	24.1	43.1	34.1	16.9	22.6	23.6	22.4	28.1	16.6	29	25.7	29.1	8.0



10. 전체 영역(세부지표 1~36)

전체 36개 세부 평가지표의 전체 평균 도달률은 56.6%로 최종 조사되었다. 도달률이 가장 높았던 세부 지표는 서비스 영역 <지표 7>인 도서관 개관 일수로 98.0%의 도달률을 나타냈고, 도달률이 가장 낮았던 세부지표는 같은 서비스 영역 <지표 12>인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현황으로 35.3%의 도달률을 나타내는데 그쳐 앞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할 지표로 파악되었다. 영역 면에 있어서는 계획 영역이 60.8%로 가장 높은 도달률을 보였고, 교류협력 영역은 4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각 9개 영역별 도달률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각 영역별 도달률 그래프

IV. 16개 시·도별 분석

36개 세부지표의 지역별 최고득점과 최저득점의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최고득점을 받은 지표들이 많았던 반면, 도 지역은 최하득점을 받은 지표들이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13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북은 11개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대비를 이뤘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와 대전시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저점을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2개, 경남과 제주가 각각 1개의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지역별 36개 세부지표의 최고득점과 최저득점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지역별 36개 세부지표의 최고득점과 최저득점 수의 분포 (중복점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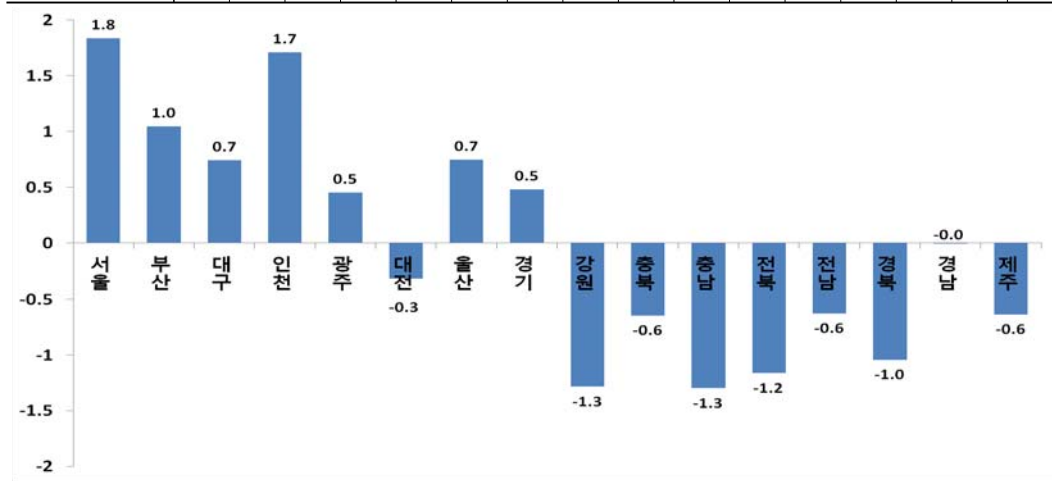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부지표 최고점 수	13	4	2	8	2	1	2	2	0	0	0	0	0	0	2	1
세부지표 최저점 수	0	0	0	0	1	1	0	0	3	5	6	11	4	3	0	5

지역별 36개 세부지표의 평균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33개 세부지표에서 평균 이상을 받았고, 3개의 영역에서만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유일하게 평균 미만의 점수를 나타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29개의 세부지표에서 평균 이상을 받았고, 7개 세부지표에서 평균미만의 점수를 받아 도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은 무려 35개의 세부지표에서 평균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지역별 최고득점과 최저득점의 분포 및 36개 세부지표 평균점수 분포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광역시가 도 지역에 비해 우수한 운영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인프라가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도 지역의 도서관 운영 실적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여러 부문에서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간 도서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도 지역에 위치한 농산어촌의 취약지역 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는 16개 시·도의 9개 영역별, 36개의 세부지표별 평균 점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단의 그래프는 전체 36개 세부지표의 원 점수 결과 값을 표준정규변수로 변환하여 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지역별 평균점수 분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영역별	평균이상	9	8	9	9	7	2	8	7	0	1	0	1	0	4	2	
	평균미만	0	1	0	0	2	7	1	2	9	8	9	8	9	5	7	
세부 지표별	평균이상	33	30	30	31	25	11	29	29	3	8	1	4	6	2	15	10
	평균미만	3	6	6	5	11	25	7	7	33	26	35	32	30	34	21	26
총 계(평균:504.6)	649.3	587.2	563.1	639.4	540.3	479.9	563.5	542.5	403.5	453.8	402.3	413.0	455.3	422.5	504.2	454.5	



V. 결론 및 제언

전국 699개 공공도서관이 2010년 한 해 동안 운영한 도서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지표별로는 총 36개 세부지표의 전체 평균이 900점 만점에 504.6점에 달했고, 전체 평균 도달률은 56.6%였다. 총 36개의 지표 중 전체 평균 도달률을 넘은 지표는 20개였고, 나머지 16개 지표는 평균 이하의 도달률을 나타냈다. 도달률이 가장 높았던 지표는 서비스 영역의 '도서관 개관일수'(98.0%)였고, 도달률이 가장 낮았던 지표는 같은 서비스 영역의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우수성'(35.3%)이었다. 9개 영역의 평균 도달률에서는 장서관리 영역이 65.8%로 가장 높았고, 교류협력 영역이 41.8%로 가장 낮았다.

16개 시·도별 세부지표의 평균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33개 세부지표에서 평균 이상을 받고, 3개의 영역에서만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점(649.3점)을 받았고,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29개의 세부지표에서 평균 이상을 받고, 7개 세부지표에서 평균미만의 점

수를 받아 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542.5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개별 지표에 대한 도달률의 증감을 확인하여 공공도서관 평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강점 및 약점 영역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다. 2011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공공도서관 평가 결과 9개의 평가영역 중 '교류협력'과 '지역사회유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평균 도달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향후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장서', '인적자원', '서비스' 영역이 기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타 관종과의 협력서비스,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과의 유대 없이는 이용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도서관 운영을 해낼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향후 '교류협력'과 '지역사회유대' 영역에서의 개선을 통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고른 성장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교류협력' 영역에서 공공도서관 이외의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다른 관종과의 자료이용, 상호대차서비스,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협력활동을 더욱 늘려 나가고, 지역 작은도서관(문고 포함)에 대해서는 운영지원, 정보협력망 구축 등 상호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역사회유대' 영역에서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기타 공공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등 지역사회내 공공도서관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의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지난 4년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도서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평가 결과의 다양한 활용과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를 국가 도서관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평가지표의 개선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토대를 둔 대안을 도출하고 제시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공도서관의 평가 결과가 향후 공공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도서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